

# 프로배구 반환점... 신인왕 경쟁 치열

## 남자부 KB손해보험 황택의 vs 현대캐피탈 레프트 허수봉... 여자부 KGC 인삼공사 지민경

프로배구 V-리그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신인왕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생애 한 번 뿐인 영광을 안기 위한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뜨겁다.

남자부에선 KB손해보험 황택의(21)가 눈에 띈다. 황택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1라운드 1순위로 KB손해보험에 지명됐다. 황택의는 190cm 장신 세터로 국가대표 경합을 지낸 기대주다. 알짜김치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각 구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입단 후 시즌 초반 만해도 원포인트 서버로만 코트에 간헐히 나왔던 황택의는 2라운드부터 2012~2013시즌 신인왕 출신 양준식(26)과 베테랑 세터 권영민(37)을 밀어내고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황택의는 세터로는 큰 키를 앞세워 정교한 토스와 강력한 서브를 등에 업고 데뷔 첫 해부터 강성형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다. 시즌을 차를수록 황택의의 복구가 예상됐지만 복원이 등장했다.

현대캐피탈 레프트 허수봉(19·197cm)이다. 허수봉은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입은 유일한 '고졸' 선수다. 그는 대한항공에 입단 하자마자 진상태와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캐피탈 유니폼으로 돌아왔다. 시즌 초 문성민, 톰, 박주형 등 경쟁한 선수들에 밀려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조급한 기회를 잡으면서 최태웅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다. 허수봉은 높은 타점과 패기를 앞세워 현



프로배구 V-리그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신인왕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인선수들의 활약도 뜨겁다. 사진은 24일 2016-2017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성균관대 황택의가 전체 1순위로 KB 손해보험에 지명된 후 강성형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캐피탈의 또 하나의 공격 옵션으로 잡아가고 있다. 최 감독 역시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팀의 기둥이 될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자부에서는 KGC 인삼공사의 지민경(19·184cm)과 한국도로공사 정선아(18·185cm)의 화제가 엇갈리고 있다. 레프트 지민경은 올 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KGC인삼공사의 지

명을 받았다. 반면 1라운드 1순위로 도로공사의 유니폼을 입은 레프트 정선아는 울상이다. 당초 1순위 지명권을 가진 도로공사가 청소년 대표팀 공격수 출신 지민경을 뽑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종민 감독은 레프트인 정선아를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주저 없이 선택했다. 하지만 정선아는 제대로 된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팀 성격이 바뀔수록

있는 상황에서 기회는커녕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민경은 레프트 자원이 부족한 인삼공사에서 데뷔와 동시에 주전급으로 올라섰다. 민와 지민경이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면 인삼공사는 프로 출범 후 13시즌 만에 처음으로 신인왕을 배출하게 된다. /김민근기자

### tVN 드라마 '도깨비' OST 음원차트 싹쓸이

tVN 드라마 '도깨비'(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가 음원 차트 장악에 나섰다. '도깨비'가 케이블 채널 드라마로는 이례적으로 15%(역대 최고 시청률 응답하라1988 18%)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누리면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또한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먼저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 차트 10위권 내에는 '도깨비' OST 다섯 곡이 이름을 올렸다(9일 오후 1시 기준). 에일리아가 부른 '첫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1위이고, 크러쉬(Crush)의 참여곡 '뷰티풀(Beautiful)'이 3위다. 에디 김의 '비쁘다니까'와 소유의 '미스 유'(I Miss You), 샘 김의 '후 아 유(Who Are You)'가 각각 8~10위에 올라섰다. 타 음원사이트에서는 보컬 그룹 허반자카파가 부른 OST '소원'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곡은 벅스·지니·올레·애플뮤직에서 1위 유지 중이다. 벅스뮤직에서는 '첫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뷰티풀' '비쁘다니까'와 함께, 그룹 '넥소의 찬열이' 부른 '스테이 위드 미'(Stay with Me)가 10위권 내에 포진했다. 올레뮤직에서는 '소원을 비'를 비롯해 '첫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뷰티풀' '비쁘다니까' '스테이 위드 미', 그리고 정준일의 '첫 눈'이 10위 안에 올라섰다. 한편 드라마 '도깨비'는 12회까지 방송됐다. 11회는 15%, 12회는 14.9% 시청률을 기록했다. /뉴스1

### 수지, 솔로 컴백... 24일 첫 앨범 'YES? NO?' 발표

그룹 '미쓰에이'의 멤버이자 연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수지(23·본명 배수지)가 솔로 가수 데뷔 일정을 공개하며 가요계 복귀를 예고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9일 소속사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수지의 첫 번째 앨범 'YES? NO?'가 오는 24일 정식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에 포함된 노래 중 한 곡은 일주일 앞서 내용을 예정이다. 소속사는 음악 소식과 함께 수지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도 함께 공개해 기대감을 키웠다. 약 10초 분량의 세 개 영상에는 각기 다른 옷을 입은 수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수지는 그동안 그가 출연한 드라마 OST를 부르며 간간히 솔로 음악 작업을 해왔다.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OST인 '좋은 댄' '팅 마이 벨' 등을 수지가 부른 바 있다. /뉴스1

# 메시 극적 프리킥 골 바르샤 패배 위기서 구해

## 프리메라리가 비아레알과 경기 1대1 무승부

리오넬 메시가 그림같은 프리킥으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바르셀로나는 9일(한국시간) 캄프누에서 열린 2016~2017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후반 종료 직전까지 0-1로 끌려갔다.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메시-루이스 수아레스-네이마르의 MSN 트리오를 전면에 배치했지만 좀처럼 득점은 터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아레알이 선제골을 가져갔

다. 후반 4분 역습 과정에서 니콜라 산소네가 평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다급해진 바르셀로나는 총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후반 7분 네이마르의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후반 28분 메시의 슛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이 겹쳤다. 표류하던 바르셀로나를 구한 이는 메시였다. 메시는 후반 45분 자신이 얻어낸 프

리킥을 트레이드 마크인 왼발슛으로 연결, 동점을 만들었다. 골키퍼가 발을 떼지도 못할 정도의 완벽한 골이었다. 승수 싸기에 실패한 바르셀로나는 승점 35(10승5무2패)로 2위 세비야(승점 36·11승3무3패)에 뒤진 3위에 머물렀다.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출전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레알 마드리드(승점 40·12승4무)와는 5점 차로 벌어졌다. /김민근기자



### 가수 허각, 1월말 새 미니앨범 발표

가수 허각(32)이 1월 말 새 미니앨범으로 돌아온다. 허각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된 신년 팬미팅에서 "겨울에 어울리는 좋은 곡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콘서트도 계획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쉬면서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는데 열심히 앨범을 준비하면서 2017년을 맞이했다"며 "나를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내 노래를 좋아해주길 항상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각은 이날 자리에서 '시적인 말로 표현하려해도, 사월의 눈', 'HELLO', '죽고 싶단 말 밖에, 한 사람', '내내꺼라는걸', '1440', '오늘만은 말할게' 등을 부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뉴스1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